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Tag: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12:1-5)

교회는 영적인 야전사령부다. 예배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은 거룩한 산 제물!; 이 몸이 곧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교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특별히 교회가 영적전쟁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는 양무리이며, 예수님은 목자장이며, 목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먹이도록 위임받은 목자들이다. 샅군 목자도 있고, 참목자도 있다.

여기에서 딜렘마Dilemma가 발생하는데, 양은 전쟁에 특화된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양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을 하려면 뒷발차기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양의 뿌리는 양들끼리 세력다툼할 때 사용하고, 뒷발차기는 도망가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양의 뒷발차기에 정확하게 가격당하면 그 충격도 상당하며, 적을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양들은 전쟁하려면 우선 방어전이어야 하고, 결정적 일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허겁지겁 도망하기 바쁘면 잡혀먹기 딱 좋다. 그러나 뒷발질을 훈련 시키면 결정적인 한방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더구나 양들은 숫자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표현도 사용하셨다. (마10:16-23) 무서워 떨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리 가운데로 가라는 뜻. 위기의 순간에 양은 뺨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이럴 때가 올 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다.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살펴보듯, 끝까지 우리가 교회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임을 계시하고 계신다. 성도에게 구원이란 현실적인 숙제인 동시에 최종적인 목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한다.

1.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 경건이 몸을 거룩하게 한다.
- 건강을 해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 당신의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 건강염려증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깨끗하게 하고, 규칙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라.

## 2. 이 세상에서의 구원

- 우리는 가장 시급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 세상에는 양의 털을 뒤집어 쓴 늑대들도 많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세속적인 온갖 악한 행위들을 자행하면서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자들이 있다.
- 선한양심을 더럽히려고 하고, 악한 사상으로 영혼을 더럽히려는 자들이 많다.
-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라는 교묘한 말로, 자신들의 악한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결국에는 선량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악한 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 모든 종류의 선한 자유, 선한 가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들이다.
- 여전히 이런 좋은 것들이 없는 나라가 많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 많은 나라가 가방을 뒤로 매는 것, 수시로 뒤를 돌아보면서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선량한 나라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거저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몸을 2절은 마음을 언급하고 있다.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

-진위구별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훈련이 익숙치 않으면 더욱 그렇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 3. 분수를 깨닫고 분량대로 생각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개인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자 개인은 자신의 분수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분수대로 자신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은 신앙이란 개인의 것이 결코 아니며 개인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온전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이 발 되려고 해도 아니되며, 발이 손 되려고 해도 아니된다. 그러면 공동체성, 건강성이 훼손된다.

-우리의 영혼은 모든 율법주의를 이기고, 세상의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암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말씀을/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

예배란 택함 받은 백성의 특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숨 쉴다고 다 사람인가?

-왜 우리는 교회에 가는가?

-복 받으려고 교회에 가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부수적인 보너스이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가? Ok, 이 또한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함인가? 잘하고 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만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성경: 전도서 4장 7-14절

Tag:

### 7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 솔로몬의 고뇌; 염세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헛됨.
- 애써 수고 왜 하나; 결과가 헛된 결과인데. 모든 인생의 결과가 헛된데 왜 수고하니?
- 영생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에 해답을 찾지 못한 영혼의 고뇌.
- 영생이나 만족은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 무엇을 얻어지는가?

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 홀로 있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면? 그 자체가 곧 고난.
- 지혜도 있고, 가진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업도 있고, 계획도 있고, ... 그런데 홀로 있다면?
- 헛되고 불행한 노고.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결국 어떤 인생이든지 홀로 거하는 것이 가장 무의미함을 계시함.
-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낫다.
- 내가 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낫다.
- 내가 좋으로 살더라도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행

복이다. (미스터션샤인;김태리의 행랑아범과 함안댁;신정근, 이정은-기생충) -귀에 꽃만 안 꽃았지 딱 미친년이 따로 없던 차에, 작고 곱고 부서질 듯 울어 재끼는 갓난아이를 만났다.(고애신)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기왕 비교급; 가난하나 지혜로운 젊은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14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전4:7-14)

-영생이나 만족은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얻어지는가?

-만족은 지혜가 아니라 짝을 통해 얻어진다.

-말동무, 생각 동무, 정 동무, 동일 운명, 동일한 목적의식, 동일한 취미, 상이하나 어울리며 균형이 되며 의지가 되고, 없어서는 아니될 요긴함이 되는 것이 짝.

-영생은 지혜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얻어진다.